

〈제1회 전북지역 여성문화제〉

제1회
여성
문화제

"Your body
is a
battleground"

학내 성폭력 근절과 대졸여성 완전 고용경취를 위한

전북지역 여성연대회의

<제1회 전북지역 여성문화제>

제1회
여성
문화제

"Your body
is a
battleground"

세상의 모든 첫경험은 소중한
그러나 여자에게 있어 성적 첫경험은
세상이 쳐놓은 덫에 걸리기 쉬워 상처가 된다.
그렇다면?

자꾸 터놓고 나눌 일이다.
자꾸 즐겁고 유쾌한 현재와
자신이 중심이 된 미래를 설계하고 도모할 일이다.
성은 현재 내 가치와 생활과 비전이 담긴 예리한 한 단면이기 때문에.

제1회 여성문화제

자료집 순서

Your body is a battleground

- 여는 시 〈우리, 이곳에서〉 ... 3
-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에 관한 성명서 ... 4
- 학내 성폭력 근절은 '여성'으로의 주장이다! ... 6
- 대학은 성폭력 박물관?!!! ... 14
- 선언! 미인대회 반대!! ... 19
- 수다로 시비 걸기 ... 23
- 만화 ... 25
- 광고 ... 27
- 여성주의 영화 ... 28
- 여성성, 여성주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여!

여는 시 우리, 이곳에서

1993년 겨울
먹어버린 처녀에 대한 댓가
그날 방바닥에 말라붙은 피딱지
여전히
끈적거리며 나를 얼어붙게 할 때가 있다
정액냄새가 남기고 간
구역질과 욕지기 때문도
더러운 몸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도 아니었다
불현듯 병든 어머니와 어렸을 적
열여덟 나이에 두번의 중절수술을 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언니 생각

언젠가 목욕탕에서 본
어머니의 보잘 것 없는 생기는
누추하다 못해 불결했으며
그보다 내 몸은 더욱 불결했고
그리하여 하룻밤만에 너무 많은
세일을 보낸 나는
살의 줄을 팽팽히 붙잡아 보려 했으나
몸의 기억이라는 끈은 견고했다

1997년 겨울
스물 네 해 만에 처음
사랑이라고 느껴던 아에게 처녀가 아님을 확인 받았고
난 노란 나비가 아니라며 위안했다
그리고
돌아서서 바라보는
고개를 한껏 내려 바라보는 가슴은
어릴적 젖을 물리던 엄마와 닮았었다

세월이 흐른 한참 뒤에
누군가
사랑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
질었울 적에 나,
아름다운 사랑 한번 해봤다고
겨울 앞 벗은 내 몸을 떠올리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에 관한 성명서

세계 2위의 성폭력 국가.

세계 경쟁력을 외치며 "성"을 상품화, 물화하는 자본과 가부장제를 옹호한 정권들이 만들어 낸 이러한 성폭력 세계화는 이 땅 여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IMF시기를 맞이하여 부당 정리해고의 칼바람에 일차적 희생자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해고로 생존권적 요구에 직면한 여성들은 매매춘 등의 다양한 형태의 성을 매개로 한 서비스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 불안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이 현실 안에서, 성폭력의 사각지대로 알고 있던 대학이라는 공간 또한 이미 성폭력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무수한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대 신정휴 교수사건을 계기로 크게 알려지게 된 대학 사회내의 성폭력은 대상에 있어 학생과 교수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직원, 지역 주민과 학생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성폭력이 공간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현실 안에 우리 대학 사회가 노출되어 있으며 대학 성원들 모두가 어느 공간에서건 성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 성폭력의 피해자 대부분인 여성들은 어떤 방어기제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다. 실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 의해 이를 사적인 일로 치부하거나 일회적인 일로 인식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따라서 사건이 끝나면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하는 것조차 힘을 잃어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되어왔다. 현재에도 계속 여러 학교에서 사건이 드러나는 현실을 볼 때 사건 중심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대책이 요망되지 않을 수 없다. 설사 사건의 해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가해자의 처벌여부가 성폭력 자체의 해결여부로 인식되며, 성폭력 사건해결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의 부재로 인하

여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건 해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처와 고통을 혼자 감수하고 있는 것이 태반이다.

이에 대학사회 내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안으로 성폭력 학칙제정을 요구한다!!!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학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성원들에게 실제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학칙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여성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은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대응 및 해결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학사회의 구성주체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남성중심의 성담론을 여성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의식지형의 변환, 그리고 나아가 사회안에서 여성권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진정한 자치규약으로써의 학칙 재구성의 논의들을 학원사회 안에서 환기시킴으로써 나가서 학원 자치운동, 대중운동을 견인해 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 설문지 등을 통한 학내 성의식과 여성권 확보를 유도해가는 등의 의식전환을 꾀하는 동시에 각 대학마다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에도 강력한 실천적 연대로 대응해 갈 것이다.
1. 자치규약으로써의 성폭력 학칙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싸움을 학단위와 함께 펼쳐갈 것이다.
1. 성폭력 근절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기 위한 모든 방법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여학우 자신들이 학내 당당한 권력을 가진 주체적 대중으로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모든 대안적 실험들을 수행해 갈 것이다.

연대회의는 성폭력 근절을 향한 그 한걸음을, 여성권을 옹호하며 인간해방의 기치에 공감하는 모든 세력들과 연대하며 대학 내의 가장 전투적인 여성운동 단위로써, 여성해방의 결코 꺼지지 않는 들불로 내딛을 것을 천/명/한/다.

우석대학교 여성행동위원회, 원광보건대학 여성위원회, 호원대학교 여성행동위원회
학내 성폭력 근절과 대졸여성 완전 고용쟁취를 위한 전북지역 여성연대회의

학내 성폭력 근절은 여성으로의 주장이다!

1. 학내 성폭력의 진단

학내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공개하지 못한다. 반면 주로 가해자가 되는 남학생의 경우는 이를 자랑스럽게 말하곤 하는 것을 보아 왔을 것이다(남학생=가해자/여학생=피해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학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 사건들은 누구나 알다시피 비밀비밀하게 있는 일이고 그 때문에 그저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묵인되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일부 성상담실이 있는 대학도 있으나 누구도 성폭행 당한 사실을 공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실제로 그 범위나 정도가 파악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학생들은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 심지어 이것이 성폭력인지 아닌지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성폭력의 몸서리쳐지는 기억을 가지고 살아간다.

성폭력이 특별한 장소나, 특정 개인에게서 일어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우리의 일상이 성폭력의 일상인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성폭력은 강간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는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강간과 성희롱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강간은 성관계(성기삽입)가 이루어진 것이며, 성희롱은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물음에 성폭력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이렇듯 성폭력에서도 성희롱이나 성추행 그리고 강간, 윤간 등의 수많은 또다른 개념들이 형성되고 있다. 성희롱과 강간의 인식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성폭력에 대해 단지 신체적 접촉의 많고 적음에 그 기준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 속에서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는 사라지면서 피해자인 여성의 인권은 침해되어지고 만다. 성폭력을 단지 성관계로만 인식하는 잘못된 성인식은 신체적 접촉의 많고 적음의 양에 따라 폭력의 기준과 그 처벌의 기준을 잡고 있는 것으로 이는 사회전체적인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지난 2월 서울대 우조교 승소 판결이 있고 나

서 많은 언론과 여성단체에서(심지어는 정권에 서조차)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94년 벌어진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은 1심에서는 원고 승소, 2심 원고 패소에 이어 5년째 이르는 올해가 되어서 우조교는 승소했다. 단지 승소의 의미만은 아닐 것이다. 성폭력에 대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특히나 우조교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잘 기억나지 않는 무슨 상을 타기도 했다. 물론 6년 동안의 법정싸움과 세인들의 눈길속에서 그 사건은 단순한 우조교 일인의 사건이 아닌 우조교 사건이 아니라 신고수 사건이다. 이제껏 드러나지, 드러나지 않게 성폭력에 숨길 수 없었던 여성 모두의 사건이었고 그래서 지난 판결은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었으며 단순한 법적인 상징적인 절차만으로 한정지을 수 없었던 재판이었다. 그러나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는가? 해마다 학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의 실태는 건잡을 수 없이 퍼져있고 이것은 다분히 음성적으로 뿌리 깊게 박혀있다. 교수와 학생간의 수직적 권력과 가부장적 권력을 등에 지고 교수가 학생에게 행하는 성폭력(96년 부산교대 사건, 96년 원광대 모과 교수의 성추행 사건, 97년 국민대 교수의 대학원생 강간 사건)사례들과 학생과 학생간에 빈번히 발생하는 성폭력 사례는 하나 하나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일상이 되어버렸다. 가해자는 어떠한 죄책감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 쪽에서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학생사회 속에서 매장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나마 서울·경기 지역(서울·경기지역 여성연대회의)에서는 학내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파악을 진행했었고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문제의 해결-사건의 양성화와 성폭력의 본질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의 모색-모습이 있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학내 성폭력 문제에 대

한 대중적 이데올로기 확보를 위한 활동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운동이 지금까지도 끊임 없이 진행되고 있고 주되게 대학 독자적인 모임들과 총여학생회나 여학생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활동했다. 그러나 현재 전북지역의 경우 전북지역 여학생대표자협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움직임이나 고민들이 수행되고 있지 못했고 지난 92년 김보은, 김진관 사건 이후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운동들이 수행되지 못했고 더구나 학내 성폭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운동도 진행하지 못했다. 실제로 전북지역에서 이제까지의 총여학생회(여학생위원회)의 활동은 93년, 94년 정신대 문제 관련한 문제의식에 그쳤다. 총여학생회가 해소되면서 여학생위원회나 여학생부의 학생회 구조 속의 단위들은 구조 자체적으로 자신의 활동의 정체성마저 상실했으며 어떠한 현재적 고민도 수행하지 못했었다. 심지어 이러한 단위들조차 존재하고 있지 않은 대학이 전북지역 대학의 절반이 넘는다. 하여 실제로 학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우들은 어디에서도 해결의 지점을 찾지 못한다.

학내에서 비밀비밀하게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대하는 과정 또는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가해자는 폭력을 행사한 자로 폭력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그래서 운 나쁘게 걸렸다는 담론이며, 이러한 담론의 기반은 이 사회가 부여한 성의 불평등한 구조와 지배적인 가부장적 권력이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 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성폭력의 문제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의 억압·불평등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문제이기때 성폭력 문제를 바라봄에있어서의 출발점은 현실 여성의 위치이다. 현실에서의 여성의 위치는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남성의 타자로서 남성의 성

적 대상, 소유의 존재이며 가부장적 권력 관계 속에서 늘 피지배의 위치에 놓여있는 사회구조 속에서의 주변적인 존재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그런 주변적인 존재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여성의 육체와 인격을 유린하는 폭력이 아니라 지배적인 남성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행위인 것이며, 성폭력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폭력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아니라 지배적인 남성권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받아 들여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폭력 문제는 암암리에 묵인되며, 끊임없이 조장되는 사회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문제를 온폐하고 전혀 해결할 의지가 없는 국가 또한 성폭력 범죄자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성폭력은 개인간의 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의 불평등한 구조와 가부장제 구조(국가)가 행하는 사회적인 폭력인 것이다.

2.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운동의 현재적 의미

이렇듯 현재 학원내에서 벌어지고 있고 암묵적으로 정상적인 행위 혹은 사회적으로 전혀 부당하지 않고 처벌 자체가 외면받는 상황에서 일단은 학우들의 '성폭력'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키고 학내 성폭력의 문제를 담론화 시켜내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 당장 지역내 각 대학에서의 학칙 제정을 전북지역 연대회의에서 담보하기는 어렵지만 왜 성폭력의 문제가 학내 대중적으로 이데올로기화되어야 하고 어떻게 담론화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그나마 존재하고 있는

대학 총여학생회나 여학생위원회와 함께 이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시각들과 수많은 편견들 속에서 성폭력에 대한 해결지점을 찾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력 구조에 대한 정면적 도전이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렇다면 학칙제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실물적인 형태로 드러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아직 공백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성폭력이라는 범죄를 행한 자의 명예훼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이라는 사회적 폭력을 행한 자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성이라는 매개로 더 이상 여성과 남성이 억압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학내에서의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나아가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와 보장이라는 의미가 사회전체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에 또다른 기준은 필요치 않다. 폭력에 대해 모호한 기준들로 인한 또 다른 폭력이 형성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단 한번의 폭력으로 평생을 그 폭력의 희생양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족한 것이다. 수많은 성폭력에 대한 언어의 남용은 피해자를 여성으로써만, 피해자를 피해자가 아니라 손해를 친 또 다른 손바닥으로만 바라보게 만들뿐이다. 성폭력은 강도, 강간 뿐 아니라 추행, 성적 회롱,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윤간, 아내강간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것이다. 즉 성을 매개로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생긴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은 모두 성폭력인 것이며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인 것이다. 그리하여 성폭력은 단지 성폭력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폭력에 대한

처벌의 기준을 정할 뿐인 것이다. 하나되고 통일된 '성폭력'이라는, 담론 속에서 '성폭력'을 근절시켜내야 한다.

3. 전북지역 대학생 성폭력 인식조사

현재 전북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운동들은 각 대학 여성운동단위의 부재라는 것 속에서 제대로 된 성의식과 성폭력에 대한 실사파악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말부터 진행한 학내 성의식과 성폭력에 관한 설문조사는 우석대, 호원대, 원보전에서 진행되긴 했으나 이것은 아직은 작은 출발에 불과한 것이다. 설문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는 좀더 면밀한 학내 성폭력의 행태를 폭로하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성폭력이 암묵적으로 대학 내에서 동의되고 그것이 묻혀버리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건해결과 는 거리가 먼, 그들에서 소외되고 제대로 된 대학생들이 불가능한 부당한 징벌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

'성'이란 음성적이고 드러낼 수 없는 더럽고 추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그것이 단순한 폭력의 개념을 뛰어넘어 대학사회에서 가부장제화 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즉 대학 구성원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지금은 '성'을 드러내야 한다. 술자리에서나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만 키득거리며 하는 얘기가 아닌, 생활이며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을 드러내야 한다.

4. 이제 이렇게 투쟁하자!

4.1 학내 성폭력의 실체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는 이중적인 성규범 속에서 오히려 죄의식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자신의 피해상황을 숨기고 상처 입은 채 살아간다. 그 중 학내 성폭력 사건으로서 알려진 것이 국민대 교수의 대학원생 강간사건과 서울대 교수의 대학원생 성추행 사건, 성균관대에서의 학생간 강간 사건 등과 이대에서의 한양대 대학원생들의 미팅제한 편지사건 등이 있다.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란 너무나 많고 다양해서, 그 주요성을 따져서 따로 선정해낼 수도 없는 형편이다.

그만큼 학내에서 수없이 발생하는 크고 작은 성폭력 사건들 역시 실질적으로 표면화된 것은 얼마 되지 않으며 현재 밝혀진 상황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런 현 상황에서 각 학교별로 대책위가 꾸려지고 해결을 도출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 부담과 어려움을 수반하게 되는데, 숨겨진 많은 사건을 대변하는 공개된 사건의 명확한 입장과 해결을 통해 사람들에게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과 위기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시급한 사명을 띄고 있기에 더욱 대책위와 같은 기구의 필요성은 강조된다. 보통 학내 성폭력 발생시 그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단위는 대부분 총여학생회나 여성위원회 같은 여학생 자치기구이며 그를 중심으로 가장 빠른 방식의 대응책이 마련되었으나 해결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 까닭에는 피해자의 일차적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도 포함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꼽힌다.

가부장제와 권위주의라는 사회원리 안에 성 관련 논의를 터부시하고 사건을 온폐-조작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왔기 때문에, 피해자인 여성성의 힘든 싸움 중에도 결국 가해자 처벌이 모든 해결의 귀결인 양 되어 버리며 결국 그 처벌도 현실의 벽에 박혀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구현되곤 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건 자체의 가시적 종결이 해결로 보여지는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미봉책만이 현실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에, 한번의 사건은 근본적인 성폭력의 근절-예방이 되지 못하여 매년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낳게 된 것이다.

또한, 기존의 통념들에 묻혀 각 학교의 해결 단위들 간에도 성폭력 사건의 기본적인 원칙이 공유되지 못하거나 혹은 단위의 사정에 따라 사건의 지리한 공방을 벌일 만한 역량이 되지 못하여 결국 사건에 따른 올바른 해결을 도출하지 못하는 데 있다. 그런 열악한 환경조성에는 성폭력 사건의 대책위가 구성되고 활동을 하는 중에 가해지는 외부에서의 참견이 한몫 하는데, 성폭력 사건을 가십으로, 성폭력을 폭력이 아닌 성관계로 취급하는 왜곡된 시선이 그것이다. 대안적 관점에서 피해자 보호의 원칙을 지키는 대책위에게 가해지는, '너무 피해자 중심으로만 묻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또한 사건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며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된다. 게다가 대책위의 구성이 대부분 여학생 자치기구로 구성되므로 대학에서의 역학관계상 주도권을 쥐고 있지 못할 경우 그 해결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으며, 남성권력에 지위권력을 더해 이중권력으로 다가오는 교수-교직원 성폭력 역시 재학생 단위로 구성된 대책위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고 성폭력 해결의 올바른 관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을 극복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성의식과 성규범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고 나갈 수 있는 상시적인 기구가 필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7년 초 있었던 사건들로 인해 구성된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이하 여성연대회의)>는 학내 각 성폭력 사건에 대해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대책위의 어려움과 한계라는 현실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일차적으로 <여성연대회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각 학교마다의 상대적인 상황들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원칙을 세워 그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그런 입장 속에서 대책위에 대한 '피해자 옹호 논리' 공격을 뿌리뽑아 올바른 해결은 하고자 한다. 나아가 같은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하는 것이 그 목표인 것이다. 이차적으로 무수히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그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함으로써, 학내와 나아가 전 사회의 여성권 확보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이다. 확고부동한 위치로서의 연대회의의 자리매김이 이후 각 학교내에서의 여성운동과 대학인 여성권 증진에 힘을 실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4.2 학내 성폭력에 대한 우리의 선결과제

학내 성폭력의 해결과정에서도 일반 성폭력의 문제에서처럼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얼마만큼의 후유증을 남기는지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 있어 역시, 피해자 스스로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고소를 꺼리는 보통의 사례에 있어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여성 운동계에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전진의 일보로 4년간의 노력 끝에 성폭력

특별법을 마련한 것도 성폭력이 범죄라는 것을 알리고, 성폭력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해당하는 적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가해를 줄이기 위함에도 목적이 있다. 물론 성폭력 특별법이 여성적 입장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매우 큰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래도 성폭력 특별법 제정 이후 실제로 피해자들이 이전보다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를 학내 성폭력에 비추어 본다면 어떻게 될까?

학교의 자치규약인 학칙은 그 학생들에 있어 법으로서의 영향력을 지니므로, 관련 학칙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그 이유는 크게 말하자면, 학내에서 피해자 자신이 명확히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학교에 알려져 당하는 불이익, 더욱이 가해자가 교수인 경우 학점이나 학위에 당하는 불이익을 꺼리는 것이다.

이런 경우 성폭력 발생시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학칙에 담아 놓는다면, 많은 피해자들과 그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지금까지처럼 힘을 소진해 가면서 그 일에 매달리지 않아도 해결 가능할 것이다. 그 작은 예들은, 사건 해결을 위해 피해자가 밟아야 하는 지난한 사법적 절차의 일부가 가해자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지, 효과적인 처벌이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가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등

이다. 몇 해나 걸릴지 기약도 없는 판례 바꾸기와 같은 일들과 비교해 보아 가장 빨리 이루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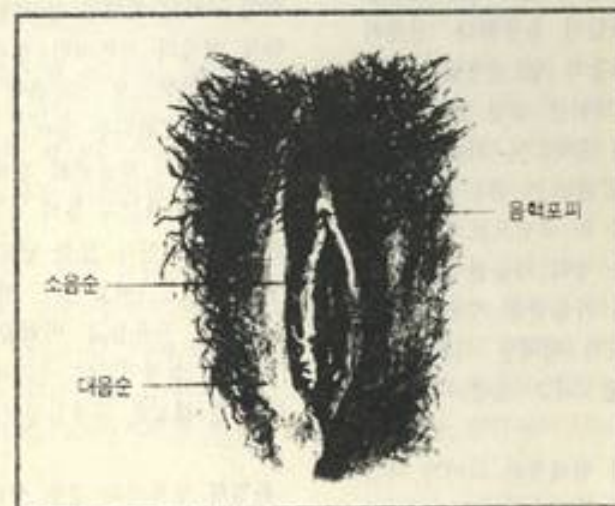
4.3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적 입장의 새로운 담론 형성과 세력화

그러나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운동은, 단순히 처벌규정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운동만이 아니다. 여성주의에 입각하여 성억압과 불평등에 대한 여성주의적 해석과 해결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성배제적, 여성억압적, 남성중심적인 성폭력의 지배담론을 해체하는 과정과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적 담론 재구성의 과정이 모두 묶이는 일이다. 즉 대안적 담론의 정치, 여성적 관점에서 주장하는 성폭력에 대한 새 담론 재규정에 여성권의 하나인 여성의 성적 자율권 확보의 의미성이 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이런 담론이 사회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위한 현실에서의 구체적 실천력으로 학칙 제정운동의 의미성이

존재한다. 풀어 이야기하면, 새로운 담론은 그에 따른 문제들과 의미성이 형성화된 구체적 '장치'가 존재되어야지만 사회화되어 세력화가 가능한 것이기에, 그 상징적 형태로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성폭력 근절을 위



한 학칙제정은 성폭력에 대한 여성적 입장의 새로운 담론이 형성되도록 하는 운동이며, 투쟁인 것이다.

4.4 여성운동단위의 세력화

법은 사회변동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사회변동을 불러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오랜 관행이 법으로 정착하기보다는 법을 만들으로써 관행을 바꾸는 경향이 큰 사회에서는 법의 중요성이 더 크다. 여성운동에서도 이런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성 모두에게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개정 노력을 해왔다. 물론 우리 법의 기본적인 성격 때문에 법을 이용하여 여성주의의 목표를 관철하려는 시도에는 한계가 있고 때로는 결과적으로 오히려 불리하게 나타나는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효용을 제한하는 것은 없는 일이다.

이런 법개정을 위한 여성주의의 노력들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체계적인 논리나 이론적 기반이 빈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여성에 관련한 법률을 여성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려고 할 때 '몸의 권리'라는 개념을 강조하여 발전시키는 방향이 유용하다. 신체의 자유가 공적인 면에서 이동의 자유, 부당하게 체포되지 않을 자유 등을 말하는 것인 반면, 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성의 주체로서, 자신이 스스로 이를 결정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몸의 권리란 기본적으로 두 측면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성적 자율권이고 다른 하나는 존경권이다. 성적 자율권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이중 성윤리가 팽배한 사회에서는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필요하고 보장되어야 할 터이다.

학칙 제정운동이 단순한 법제정의 의미가 아니라 하는 것은 이런 말이다. 성폭력에 대한 여성적

입장의 새로운 담론의 형성은 성의 불평등한 구조와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남성권력 지배의 현실에서 그 자체로 투쟁일 수밖에 없으며, 여성운동 단위들의 구체적인 행동결과인 것이다. 남성중심적인 성폭력의 담론을 해체하고 여성적 입장의 새로운 담론을 재구성하여 세력화한다는 것은 현실정치에서는 딱히 구체적으로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이다. 즉 여성운동 단위들의 노력이 이러한 구체적 실천력으로 나타나 대중운동화되지 않는다면 남성중심적인 성폭력의 역사는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현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4.5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 운동의 방향성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운동의 방향성은 성폭력에 대한 여성적 입장의 새로운 담론으로 여성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사회 모든 구성원의 자율적인 동의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담론의 대중적인 공유 속에서 서로의 성적 자율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겠다는 대학사회 구성원들의 자치적인 규약의 의미인 것이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의 기본적인 전제는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입장으로 성폭력에 관련한 모든 언어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성폭력에 대한 개념규정, 성적 자율권의 침해여부, 조사과정과 처벌, 예방과 재교육 등의 것들이 여성의 입장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또한 날로 다양한 형태로 학내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대학사회 안에서 여성들은 자유롭고 비억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실정하기에 우리에게서 환경형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문제설정이 필요하다.

환경형 성폭력의 경우 상대방의 행위가 개인의

업무능력을 저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 근무(생활, 교육)환경을 형성할 의도를 띠었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이다. 환경형 성폭력 개념이 정립된 과정을 보면 여성권 논의에 상당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동안의 성폭력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불법적 성차별로 인정받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환경형의 경우는 피해 여성의 주관적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합리적 인간'이 적대적 또는 남용적이라고 판단하고 피해자도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낄 때에는 객관적으로 적대적인 작업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행동이 그 또는 그녀의 심리적 복지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는 증명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또한 환경형 성폭력의 판별에는 환경의 구성 요소들이 조사될 필요가 있으며, 어떤 단일한 요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차별적 행동의 빈도와 정도, 물리적 위협 또는 단순한 공격적 언동이라든가 혹은 고용인의 작업에 대한 불합리한 참견 같은 것들도 적대적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외국에서는 어떤 행위가 성희롱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데 그것이 고의적인지 공격적인지 아닌지

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오직 '원하지 않는' 행동이면서 '상대에게 상처주는' 여부만으로 족하다고 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환경형 성폭력의 개념에 타자에 대한 배려가 존재함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합리적 인간'이라는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피해자 여성의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단순히 남성중심주의를 벗어날 뿐 아니라 특수자의 관점을 보편화하여 그것을 모든 상황에 대한 잣대로 삼는 근대적 시민권 개념의 전체적인 틀거리를 바꾸어 놓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행위가 '객관적으로' 적대적인지 악의가 있었는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상황과 상대가 느낄 감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 문제라는 식으로 문제틀이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환경형 성폭력에 대한 문제설정은 대학사회 구성원으로써 여성이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의 기반을 잡기 위해서이고 나아가 대학사회를 구성하는 양성 모두에 비억압적인 환경을 구성해내기 위해서이다.

광고

xx양이 남긴 팔막한 유서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답답한 심정이 배어있습니다. 이양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자살하기 1시간 전인 새벽 1시반, 김해시 구산동에서 택시를 탔다가 운전사 공모씨에게 장위면 부곡리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공씨는 이양에게 다시 만나자며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 줬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 공모씨 :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아가씨가 드라이브하자 해 갔다.

@최영태 기자 : 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된 공씨는 추행은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양을 부검해 정액과 DNA검사 등을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살 대신 죽음을 택한 이양의 선택은 정조관념이 희박해진 요즘 세대에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김해에서 MBC뉴스 최영태입니다.

<1997. 9. 11 MBC 뉴스데스크>

학내 성폭력 사례 (서울지역 중심으로)

대학은 성폭력 박물관? !!!

1. 교수-학생간의 성폭력 사례

서울대 구교수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97년도 밝혀진 사건으로 교수와 제자라는 명백히 드러나는 권력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진 성폭력임에 더욱 그 해결에 관심이 주목되었던 사건이다. 93년도에 밝혀졌던 신교수 사건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지닌 점은 성폭력의 정도가(굳이 정도를 따지자면) 훨씬 심각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의해 신교수 사건과는 달리 구교수 사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성폭력임을 인정하며 구교수를 탄핵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그 사건을 살펴보자.

구교수는 약대 교수이다. 약대는 채집여행을 많이 가는데, 그는 대학원생인 ○○○씨와 단둘의 채집여행을 계획하고는 채집여행을 빌미로

○○○씨를 여관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했다. 이에 반항한 ○○○씨는 서울로 돌아온 후로도 계속 교수의 언어적 폭력(학위를 주지 않겠다는 등...)에 시달렸으며, 여러 해가 지나도 학위를 받지 못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한 학생은 ***씨 한명만이 아니다. 이렇듯 ○○○씨와 다른 피해자들이 이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여 구교수를 고소하자, 구교수는 ○○○씨와 다른 피해자들을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구교수가 ○○○씨와 다른 피해자들을 죄가 없음에도 고소를 하였으므로 구교수에게 무고죄를 선고하였다. 이렇듯 구교수에게 무고죄가 선고되자 학교에서는 구교수를 직위해제 시켰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우리가 명백히 주목하여야 할 점은 구교수가 결코 그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에 의해 단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무고한 사람을 죄가 있는 듯 고소를 한 점에 대해 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이 난 것이지, 성폭력에 의해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해결과정에 있어서 학교에서 교수의 직위해제 처벌을 받은 것 역시 성폭력이라는 사회적 범죄

학내성폭력사례

에 의한 것이 아닌 교수의 신분에서 어긋나는 행위(무고죄...)를 한 것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살펴볼 때 학내에서는 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권력관계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부도덕한 몇몇 개인이 저지르는 행위라고 여겨짐을 알 수 있다.



그랬요?"라고 말을 했다. 갑자기 정범석이 동덕의 학우들에게 일어서라고 소리치고, 동덕의 학우들이 일어서지 않자,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H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갓은 욕설(X같은 년, *발)을 퍼부었다. 이에 K(피해자, 동덕학우)가 말로 하라며 항의하자 K학우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구타하였다. 또 같이 있던 J(피해자, 동덕학우)가 놀라 쳐다보자 정범석은 "뭘, 끌어봐"라고 하며 주먹 등으로 동덕의 학우들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자고 있던 시립대 학우들까지 발로 차서 깨워 "이런 X년들이랑 조인트 올리면 다신 오지도 마. 똑바로 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무릎 꿇어"라고 소리쳐 일제히 무릎을 꿇게 하고, 다시 동덕의 학우들에게 "다시 말해봐! 뭐 이따게 다 있어."라며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말리는 시립대 학우(96)들도 맞게 되었다.

2. 학생간의 성폭력 사례

시립대, 동덕여대 MT사건

■ 사건 개요

97년 10월 시립대, 학우와 동덕여대 학우가 각각 5명 정도 우이동 MT촌으로 MT를 가게 되었다. 저녁 먹을 때를 전후로(약 9시경) 시립대 학우들과 동덕의 학우들이 계속 산발적으로 오게 되어 정확한 인원 파악과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11시경부터 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새벽 4시경부터 동덕 학우들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음을 과대에게 알리고 귀가하여 새벽 6시경에는 동덕의 학우들이 3명만 남게 되었다. 이에 시립대의 정범석(가해자, 정밀기계공학과 92학번)은 "너희 과, 원래 이러냐? 다 가네!"라고 시비조로 말을 하자 H(피해자, 동덕학우)가 "일이 있으면 갈 수도 있지 왜

시립대 학우들이 동덕의 학우들에게 계속해서 소리치고 같은 욕설을 퍼붓는 정범석을 끌고 가며 빨리 가라고 하였고, 동덕의 학우들이 자신들이 준비해 온 코펠을 비우고 갈 준비를 하는 동안도 정범석은 "저런 X같은 년들 다니는 학교랑은 상종도 하지마"라는 식의 욕설을 계속했다.

■ 사건 이후의 진행 상황

10월 6일 동덕의 여성행동위가 이 사건에 함께하게 되었고, 10월 9일 시립대학교 총여학생회에 이 사실을 알렸다. 10월 23일 동덕여대에서 여성행동위와 시립대 총여, 피해자, 비대위(비상

대책위원회), 가해자 대변인, 가해자, 96과대표가 참석하여 첫 만남을 가졌다. 시립대 총여의 진행으로 절차에 따라 서로의 진술을 구술로 다시 듣고 질문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가해자 진술문의 「심하게 꾸짖었고」가 피해자 진술문의 욕설이었음이 확인되었고, 「달려드는 학우의 얼굴을 밀었다」는 부분은 가해자의 진술문과는 달리 폭력적인 행동이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가해자 정범석은 피해자 H학우의 머리채를 잡았던 점과 놀라서 쳐다보기만 하던 J학우를 주먹으로 때린 점 등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K학우의 얼굴에 욕안으로 확인이 될 정도로 상처가 난 것을 게임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태도를 일관하였다.

여성행동위가 92학번이라는 고학번의 선배가 자기과 후배들 뿐 아니라 같이 MT를 온 여학우들에게까지 기강을 잡으려하며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학우가 가해자에게 달려들 수 있었겠다고 질문했다. 시립대의 가해자와 대변인은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달려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으나, 당시에는 K학우가 달려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방에 있던 시립대 96들은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에', K학우가 달려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외의 머리채를 잡은 부분과 가만히 있는 학우에게까지 폭력을 쓴 부분은 자신이 감정이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 후 가해자 대변인과 가해자는 가해자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게 된 원인이 동덕의 학우들이 3명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가려고 하였고, 게임 도중에 동덕 학우가 '뭐 이런 MT가 다 있냐'고 말하는 등 예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이 사건의 동기가 동덕 학우의 무례함에 있다는 태도를 일관하였다.

동덕 여성행동위는 가해자 정범석에게 물리

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동덕여대 참가 학생들 앞에 공개 사과와 자필 사과문을 요구하였고, 각 학교에서 비밀비재한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이 사건을 대자보화 하며 학보에 게재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가해자 정범석의 성차별적 사고를 반성하는 계기로 성폭력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 가해자와 그의 대변인은 "동덕 학우의 행동은 기본적인 예의에 벗어나는 것이었다. 후배가 선배에게 한번 고개 숙이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과에서는 '선배가 팔을 부러뜨리는' 일이 있어도 방식에 있어서는 문제삼지 않는다. 그 학우가 우리 과였다면 아마 맞아 죽었을 것이다. 사건 후에 전화로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왜 받아주지 않았는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동덕의 요구안을 전면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동덕의 행동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후 여성행동위는 "그러한 권위는 특정과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강요될수도,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공식적인 그리고 공론화된 사과를 원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개인적인 연락을 바라지 않은 것이다. 토요일



(10월 25일)까지 생각해보고 결정해 달라." 그러나 10월 25일 약속된 시간에 여성행동위와 시립대 총여와 비대위, 피해자가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가해자 대변인만이 나오으로써 그날의 모임은 파기 되었고, 이날 가해자 대변인은 동덕의 세가지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다.

■사건에 대한 동덕 여성행동위원회의 입장

우이동이라는 곳의 특성상 선발과 후발이 일관되지 않는 점은 일반적인 우이동 MT촌의 병폐이고, 새벽녘 동덕의 학우들의 귀가시 시립대의 학우들이 버스타는 곳까지 바래다 주었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가해자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연합 MT의 공간은 그 MT에 참여한 개개인의 행동이 존재하고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지, 단지 남녀의 성비문제로 개개인의 의사와 행동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해자 정범석이 성비를 문제삼은 것은 MT에 참가한 여학우들을 돌입된 인격체가 아니라 남성들이 즐기는 공간에 부차적으로 존재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며, 이것은 전형적으로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된 주체로 바라보는 성차별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우리는 성폭력을 성기삽입 여부만을 놓고 규정대리는 남성중심적인 성인식에 명백히 반대한다. 가해자 정범석이 피해 여학우들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였다는 상황과 자신이 고학번이라는 권위, 남성과 여성이 위계적인 권력을 이용하여 억압적인(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자신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여학우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은 성폭력을 행한 것이다.

●94년 6월 경희대

미술공학과 교수 성추행 사건으로 학생들 항



의·농성

●94년 6월 한양대 안산캠퍼스 산업디자인학과

J모 교수에 의한 성폭행, 학생들의 항의 및 선전 작업으로 가해자가 교수직 사퇴로 마무리.

●96년 서울예전

강사가 학생 몇몇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사건은 강사가 사퇴를 함으로 일단락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총여가 없는 서울예전에는 총학생회에 여학생부를 신설해서 작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96년 11월 부산교대

체육과 교수가 체육과 산행을 하던 중 여학생들에게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행하여 학내 문제화된 사건. 학생과 교수들이 모여서 진상조사위원회와 대책위를 꾸렸으나, 이후 주동한 학생들이 징계를 당함으로 묻혀버렸다.

3. 집단간의 성폭력 사례

이대 대동제에서 고대생 집단난동사건

고대생들은 우선 영산줄다리를 위해 열을 지어 있던 이대 학우들 사이를 치고 달리며 심지어는 가에 서 있던 한 학우의 팔을 잡아 질질 mmF로 다녔다. (약 3미터는 끌려 다녔다.) 나는 지킴이 친구들과 팔을 기고 그들을 막던 중 내 위로 고대생들이 밟고 넘어가게 되었는데 안경과 모자가 벗겨지고 너무 당황해서 꿈을 꾸는 줄 알았다. 그들은 이런 나의 모습과 학우들의 모습을 즐기며 통쾌해했다. [1996년 대동제 피해사례 중]

1996년까지 12년간 이화여대 대동제에서는 수많은 고려대생들이 물려가 행사를 방해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집단 성폭력이 자행되었다. 대동제 마지막 날에 고대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폐막제가 진행될 시각에 이화 광장에 모이는 조직력을 보이고 고무장갑과 호루라기 등을 사전 준비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운집한 이들은 광장 전체를 점거하거나 지도자(?)의 구호에 따라 광장을 에워싸면서 이대생들의 접근을 차단하며 고대 응원가를 부른 후 기차놀이 대형을 짜고, 저지하는 이대생들을 돌고 광장과 연결된 운동장에 돌진하여 진행중인 행사를 방해하고 중단시켰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이대생들에게 많은 육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가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자행하였다. 많은 이대생들이 넘어지거나 깔려 밟히는 등 부상이 속출했고, 1996년의 경우 한 이대 학우가 팔이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화여성위원회는 고대생 집단 난동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근절을 위한 활동을 벌여 왔다.

이화인들의 대동제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고대생 집단 성폭력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사건 당시의 비디오 상영이 진행되었고, 고대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여 이대 여성위원회, 고대 여학생위원회, 이대 총학생회, 고대 총학생회의 입장을 공표하였다.

이화여성위원회는 1997년 초부터 이대 총학생회와 함께 고대측에 예의 4자 테이블을 제안, 총 11차에 걸쳐 난동 근절을 위한 공동논의와 실천 계획을 가져왔다. 이 사건의 재발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학기초부터 양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에서 교양 작업을 하는 예방을 위해 활동하였다. 이후 이대에서는 여성위원회와 총학생회가 함께 고대생 집단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5월 중 자봉단인 '몽침이' 모집, 교양대회, 결의대회 등 집중적인 활동을 펼쳤다.

대동제에 들어서서 몽침이와 함께 총학생회 산하에 있어 온 지킴이, 영상이, 꼬우미 등 대동제 자봉단들이 모두 결합하여 3일간 이화광장과 운동장 주변의 순찰 활동을 시작으로, 난동이 가장 심해 온 마지막날에는 모든 자봉단들이 영산줄다리가 이루어지는 대동 폐막제 중 이화광장에 운집해 있는 남학생들을 감시하는 작업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고대 여학생위원회에서도 고대생 집단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실천단을 만들어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자봉단 뿐 아니라 이대와 고대의 학생처 교직원, 이대를 졸업한 선배님들, 교수, 비번이었던 수위아저씨, 이대앞 페미니스트 카페 '고마'의 주인 등 수만명 사람들이 이화공간 지키기에 함께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화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끝까지 폐막제에 함께 참석했던 이화인들의 힘으로 1997년 111주년 이화 대동제는 고대생들의 집단 성폭력 난동 없이 여성공간 '이화인의 대동제'로 마감될 수 있었다.

미인대회를 반대한다!

미인대회 구경, 재미있으십니까?

'생활의 활력소'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독한 '남성중심적

이기주의적'인 생각이라 단언합니다.

여성들의 치욕스러운 모습...

이젠 하도 익숙해져서 맘편히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우리 이제는, 미인대회 중계를 보며

"xx번이 1등할 것 같아"라고

즐거워 할 수만은 없습니다.

5월이면 국내 방방곡곡에 창궐하는 미인대회들의 원조격인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시끌벅적하게 치러진다. 해마다 철이 돌아오면 텔레비전 영상을 필두로 당연한 듯한 축제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인대회 폐지론이 떠오르는 하지만, 수많은 미인대회는 여전히 건재하며 이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즉, 그 보편성과 정당성을 인정받는 과정인 미인대회 자체의 개최들과 공중과 방영,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대중들에 의해 이제 하나의 생활문화 현상으로 공인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공성을 생명



으로 하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직접 미인대회를 주관하거나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미인대회는 여성들의 육체를 심사하고 평가함으로써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의 육체

를 제시한다는 거품터이다. 과연 그렇게 규격화된, 객관적인 미인이란 있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객관의 기준이란 또 누가 정하고 심사하는 것인가?

그 '이상적인 여성의 육체'란 마치 쇠고기가 부위별로 평가받듯, 그 대부분의 기준이 목, 어깨(의 선과 각도), 잇속 잇몸, 유방(의 위치) 등

미인대회반대!

신체부위별로 나누어진 분야들로서 그에 '객관적으로' 평가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를 공인된 미인으로 뽑은 것이다. 또한 너무나 당연하게도- 약간이라도 비판하거나 왜소하거나 높고 왜소한 신체는(너무나 당연하게도) 선발에서 배제되어, 이러한 육체들은 관리되고 교정되어야만 한다는 인식을 보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입한다. 이미 그 당위성으로 '육체화의 전쟁'이라는 말이 들어맞도록 된 무리한 다이어트나 온갖 신체부위의 정형 등은 바로 이러한 틀에 맞춰지기 위한 과정의 하나일 터이다. 먹고 싶은 것을 억눌러가며, 답답할 것이 뻔한 속옷을 힘들여 입으며, 하루종일 외모에 대한 걱정을 무의식중 염두에 두며, 남들이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으며.....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과연 누구를 위해 우리의 몸과 정신에 이토록 극단적으로 테러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듯 관리되고 교정된 육체는 결국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누구에게? 이는 이미 사회 주류의, 남성의 시선으로 길들여진 여성들의 시선도 포함되겠지만) 주는 '균형잡힌' 그것이며 결국 '쾌락을 즐기기에 가장 알맞은 육체'로 물상화, 대상화되어 제시되어지고 있다. ('여성=비합리성=감정=육체'라는 공식은 이미 남자 사상가들이 만든 철학사, 문화사의 아주 옛날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암묵적인 대전제로 자리잡고 있지만 말이다!!)

미인대회는 분명 이 시대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주장되는 여성성을 제시하고 강요한다. 그 여성성의 내용은 한마디로 여성의 가장 성적인 육체만을 가치있게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 말은 거꾸로 미인대회에서 제시되는 외적 이상의 조건에 부합하는 여성의 육체만이 성적인 것이며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과도 통한다. 진부한 말이지만, 여자도 '인격체'임이 물론이다. 여성의 그런 공식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철

저히 육체적이고도 또 인격적 주체가 아닌 '누군가'의 대상으로서, 또한 성적으로 가치있지만 한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인가?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의 기준이 되어 버린 여성성이란, 바람직(?)한 여성의 모습이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여성의 주체적인 의지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 그야말로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잣대질 당한 결과가 되어버림이 초래된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그 가장 큰 피해자일 우리 자신의 인식마저 되짚어 본다면 그 존재의 자취를 확인할 수 있듯, 모든 사회의식에 반 강제로 주

여성의 그런 공식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철저히 육체적이고도 또 인격적 주체가 아닌 '누군가'의 대상으로서, 또한 성적으로 가치있지만 한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인가?

입되어 진정한 여성성을 왜곡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에서는 여성의 육체가 하나의 상품 또는 눈요깃거리로만 취급되는 비인간적인 의식이 구현된 이러한 제도-미인대회-가 결코 진실이 아닌 찬양 속에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공중파를 통해 이 사회 내에서 여성이 하나의 전인적으로 완성된 주체인 인간으로서가 아닌 하나의 상품, 눈요깃거리로만 취급되는 것, 즉 '여성의 비인격화'를 노골적으로 공인하고 강화한다. 여성 신체를 평가한다는 심사를 한답시는 자리에서 '우리사회'라는 겹포장을 한 남성성권력은 여성의 인격성 자체를 경시하고 있으며, 여성의 육체를 인격에 앞서 맹목적으로 우상화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인대회는, 여성인력과 많은 자본을 이루 해야 할 수 없이 낭비시키고, 왜곡된 여성문화를 이 사회와 여성들에게 진실인 양, 그것만이 전부인 양 가르치게 된다. 젊은 여성들에게 화려

미인대회반대!

한 신데렐라로의 환상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에게 많은 시간, 에너지, 경비를 낭비시키고 부추긴다. 비단 미인대회 참가와 시상의 꿈을 꾸는 여성들에만 아닌 그 효과는,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는

여성의 외모 가꾸기 경쟁의 조장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미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피해를 들자면, 2만명 가까운 젊은 여성이 평균적으로 모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 1996년도 미스코리아 평가 기준안

구분/심사기준	심사요점	점수
얼굴전체 (매력, 균형)	- 첫인상이 쿼트하고 개성이 강하며, 매력(남의 시선을 끄는)적이어야 한다. - 얼굴이 크지 않아야 하며 - 말할 때와 웃을 때 보이는 치아가 골라야 하고 잇몸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 눈과 코를 지나치게 정형하지 않았는가 - 얼굴 전체의 균형이 잡혀야 한다.	1.이마 2.눈 3.코 4.입(입술) 5.잇속 잇몸(미소지을 때) 6.턱 7.귀
목, 어깨, 팔, 가슴	- 목이 짧지 않은가 - 양 어깨가 넓으면 안되며, 어깨의 선(각도) 부드러워야 한다.(20도 각도가 이상적) - 유방의 크기, 위치, 선(후보자가 유방을 위로 지나치게 노출시키기 위해 조작한 것에 유의) - 팔이 체격에 비하여 짧지 않은가 - 팔의 선, 탄력성	8.목(짧지 않은가) 9.어깨의 선(20도 각도) 10.팔의 선, 근육, 탄력성 11.손 12.유방의 크기, 위치, 선
하체	- 등의 선(곧은가) - 허리의 선과 사이즈(굽으면 안됨) - 배(나오지 않았는가) - 허프의 사이즈 선 모양(처지지 않았나) - 넓적다리 상부의 앞 뒤 모양(벌어져 있지 않나) - 다리의 선(죽 곧은가), 탄력성(근육이 보이면 안됨)	13.등의 선(곧은가) 14.허리선, 사이즈 15.배(나오지 않았나) 16.허프의 사이즈, 선, 모양 17.넓적다리 상부의 앞 뒤 모양 18.다리의 선(죽 곧은가), 근육 탄력성 19.무릎, 발, 발뒤꿈치
전체 피부(색), 흉 유무 (전신의 매력, 균형, 교양미)	- 몸에 상처 및 큰 점 유무 - 걸을 때의 자세 - 몸 전체의 피부 - 매너/말하는 태도와 서있는 자세 - 교양미(질문으로 확인) - 가정환경(질문으로 확인) - 교육정도(질문으로 확인)와 외국어 실력 - 키가 큰 사람을 위주로 하지 말 것 - 전체 체격에 균형이 중요함(다리가 몸 전체의 균형에 맞지 않게 길어서 앉으면 작은 사람과 허리가 긴 사람)	

시대의 보편적 여성문화의 척도처럼 일컬어지는 '이대생'들의 문화에 대한 사회의 그 가치의 이중성으로 인한 기만적인-형편없는 폄하와 더불어, 또한 그런 미인대회의 기준과 부합하는 '아마도 이상적인 이대생'의 이미지를 상품화하여 재화·용역에 덧붙여 매매하는 이대알 거리와 모이는 사람들에 대한 또한 굵지 않은 눈길의 상승효과가 있다. 외모에 대한 그토록 과다한 열기를 100인 100색의 개성을 타고났고 또한 스스로는 남과 다름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의해서 정리된 것인지도 모르는 일괄된 기준을 향해 돌진하는 여성들의 심리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선발된 '미인', 그만큼 확실한 효과를 발하는 튼튼한 이데올로기는 정말이지 혼치 않을 것이다.

아울러 여성을 능력보다 외모에 치중해 평가해 온 직업 사회의 풍토를 공고히 하기도 한다. 취업시, 실력보다 중요한 조건이 되는, '용모단정'이라는 불문율. 비단 취업생이 아니더라도 그 뜻을 모르는 학우는 드물 것이고, 그렇다면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용모단정' 조건의 부당함을 느껴 분노해 보았을 터인데, 그에 대한 문제제기의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미인대회가 부여한 각 범주의 면죄부가 한몫을 한 것임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연되는 성의 상품화·여성전체에 가해지는 엄연한 성희롱-물 '미의 제전'이라는 명분으로 합리화하고 부추긴다. 이는 사실 외모와 성적 매력을 최대한 부각시켜 여성을 상업적 도구로 이용하는 방법일 뿐이며, '미모경쟁'이라는 미명하에 그 여성들의 육체를 갖가지 방식으로 구경거리화시켜 버리는 것뿐이다. 성이 물상화됨으로써 이 사회가 겪게 된 갖가지 병리적인 폐해들의 원인인 중죄범이다.

이렇듯 미인대회를 비판하는 것은 단지 여성

육체의 대상화, 미의 정형화 등을 문제삼는 것 뿐만 아니라 미인대회를 통해 표상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여성성, 그리고 여성의 육체에 강요되는 형식들과 그로 인해 더욱 공고해지는 성의 불평등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제기이다. 따라서 미인대회 폐지의 주장은, 여성에게 지금까지 강박적으로 주입되어 왔던 육체의 조건에서 벗어나려는 작은 움직임이며 왜곡된 여성성을 되찾으려는 시도의 한결음일 것이다.

이렇듯 부당한 이데올로기는, 그 <피해자>인 여/성/스/스/로 에 의해 거부되고 반격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II
미인대회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왜?

더 이상 용서가 안되기 때문에!



수다로 시비 걸기

(이 글들은 이화 통신 소리통입니다.)

●제목 : 나 이름 없어요...!

96/10/17 16:14 읽음: 27 관련 자료 없음

지난 여름 농활 때의 기억이 살아난다.

여성반...운명을 할 때,
우리는 감자를 쪄 가지고 가서는
모여 계시는 아주머니들과 대화를 했었다.
가기 전에 선배들의 경험담을 들어 보니,
'이름 부르기'를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게 좋다고 했다.

내 생각에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
우린 아주머니들께 이름을 여쭙기로 했다.

아...!
그래, 생각은 했었지만...
정말이지, 아주머니들은 당신들의 삶에서 자신의
'이름'을 아주 잊어가고 계셨다.

그중 제일 젊은 아주머니께
이름을 여쭙았더니,
너무너무 쑥스러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번이나.
"나 이름 없어요" 라고...

이름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덴티티가 아닌가.
여성이란 무엇일까.
이 사회에서,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존재가 바로,
여성이 아닐까.

●제목 : 취업과 여대생들

96/10/15 21:47 읽음: 56 관련 자료 없음

오늘자 여성 신문 기사로,
'취업과 여성'에 대한 기사가 났다.

통계치에 따르면,
'여대생들이 취업이 목전에 다다라서야 관심을 보인다'는 결론이다.

그러고 보니, 이번 계절학기 때 들었던 여성학
강의에서, '취업'부분을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우
리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시는데, 우린 당장 코
앞에 닥칠 일임에도 너무도 취업문제와 사회 들
아가는 상황에 대해 무심하고, 무지했다.

우선 나부터도.

지금, 취업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중이어서,
더더욱 뼈저리게 다가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우린 너무도 무방비 상태이다.

바로 우리의 일인데 말이다.
취업 정보, 일터에서 살아남는 법,
그리고 직장 성차별의 문제 등.
대학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관심을

유도하고,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목 : 여자 몸매의 맥주잔

96/11/17 00:11 읽음: 109 관련 자료 없음

말로만 들던 여자 몸매를 가진 맥주잔을 내 눈으로 확인했다.

불룩 나온 가슴과 잘록 들어간 허리

다시 튀어나온 엉덩이로 이어지는

맥주잔을 남자들은 좋다고 마신다.

그 맥주잔은 손잡이도 없다.

여자의 잘록 들어간 허리를 잡고 마신다.

가슴과 엉덩이를 양쪽에 가까이 두고 말이다.

그 속에 끼여져 있는 몇 명의 대항할 수 없는

여성들.....

대학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 남성들의 문화에 익숙해져야 한다지만.....

난 다른 잔을 달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 단지 여자 친구에게 이제 튀냐고 불평할 만한 용기 밖에는.

웬만큼 익숙해져 있는 남성위주의 대학문화에 이런 식의 말로만 들던 일에 직접 마주치게 되면 뭐라고 말하기에는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 같이 웃어버리고 마는 나...

내가 싫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제목 : '예식장'이란 곳

97/04/27 01:05 읽음: 32 관련 자료 없음

결혼식의 주례사 또한 가관이다.

지금껏 들어본 주례사에서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얘기.

"남편은 남자답게, 아내는 여자답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시댁을 늘 생각하고,

집안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며~"

사랑이란 미명하에 이렇게 구체적인 *억압*과 일방적인 *권력관계*의 종용이 아무렇지 않게 강요되는 장인 것이다.

그것도 서로의 축하와 미소 속에서.

●제목 : 어제밤 지하철 풍경

96/10/11 11:43 읽음: 32 관련자료 없음

막차타고 집에 오는 길...

지하철에서 꾸벅꾸벅 조는데

주위가 너무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제대루 졸 수가 없었다.

어디서부터 그런 문제가 시작된 건지 모르지만,

여론 한 대여섯의 남자들이

지하철이 마치 자기네들이 전세낸 곳인 양 떠들어대는 것이다.

"무장공비가... 어찌구...술이나 처먹구...어찌구..."

그러더니만, 급기야...

남자들의 영원한 자부심, '군대'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어찌구..."

"난 육군 장교로 있었는데..."

하.하.하.

그 사람들은 모두 처음 본 사이였다.

군대 얘기가 나오니, 지하철 안의 남자들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고...

얼마나 뜨거워졌냐면,

그 수컷 주위의 여자들이 얼굴이 이상하게 일그러지며 자리에서 일어서고 급기야 서있던 사람들은 지하철의 다른 칸으로 이동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나는 기껏 얻은 자리인지라,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중년 남정네들의 '소위 정치적인' 이야기라

일컫는 뽀소리를 듣고 있어야 했다.

정신 사납게 시끄러웠다.

무엇이 그들에게 그런 뽀뽀스러움을

허락했는지 모르겠다.

사랑이란??



금방감을 대각 시켜주려고 참내해당 굳기도 하고



경험된 사랑이 사랑의
원래 취미 여하를 내음



유대하게 애정결핍
해원주와 영미로도 결심하...



남편의 군림력을 해원주노라
시내처럼 ...



남편의 다리가 좀 더 튼튼해졌으면
재미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상 가장 큰 걱정거리는 남편의 노년기 기가이



변태성욕을 위한 신체 운동 기가이



우리 금방 결혼 생활 지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젊은 커플은 자라나게
말할 수 있어요. - 비록 저세상에서지만...

WOMAN IN CYBERSPACE

● 여성 동호회

- 하이텔 - 페미니스트들의 천국 (go femi)
여성 전용 대화실 (go wchat)
- 천리안 - 여성화 동호회 (go femi)
'주부 동호회' (go jubu)
- 나우누리 - 여성 전용 동호회 「생의 한가운데」 (go miz),
여성주의 문화연구모임 (go ssociety2)

● 여성분과가 있는 공간

- 하이텔 - '바른 통신을 위한 모임'(go barun),
- 천리안 - '희망터'(go pp)
- 참세상 - (01410접속 후 '참세상')

● Internet의 여성주의 site

- 한국 여성단체 연합 (www.women21.or.kr)
- 한국 여성 민우회 (www.womenlink.co.kr)
- 한국정신대 대책협의회 (<http://witness.peacenet.or.kr>)
- 페미넷 (www.iworld.net/Entertainment/Movie/boim)
- 이볼 (www.spiral.co.jp/bl-e.html)
또는 (www.bd.co.kr/artnet/artist/bulle/mornarn.html)

여성성, 여성주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여!

이다(TO BE)

■ 작품 해설

박찬욱 감독 <독립영화>

사람들이 가득한 지하철에서 희정은 자신의 속옷이 밖으로 빠져나온 것을 발견하고 옷치림을 추스린다. 성적으로 위축된 희정은 맞은 편에 서 있는 능글맞게 생긴 남자를 경계하며 그의 손을 살핀다. 남자는 아무 짓도 안하고 있다. 무심히 몸을 움직이다가 희정은 옆에 서있던 암전하게 생긴 학생이 지금까지 자신을 만지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희정은 몹시 불쾌하다.

달리던 지하철이 덜컹한다. 그 바람에 희정의 손이 앞에 서있던 여자의 엉덩이를 건드리게 된다. 희정은 자기도 한번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조심스럽게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희정. 여자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가만히 있다. 희정, 계속 만져본다. 지하철이 서고 여자가 내려려고 한다. 희정은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다. 그녀의 뒤를 쫓아가지만 사람들 때문에 끝내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여자의 뒷모습을 뒤로 한 채 지하철은 떠난다.

■ 연출의도

· 이 영화에는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는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한 여자가 나온다. 나는 관객들이 그녀의 그러한 충동적이고 왜곡된 행동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성에 대한 피해의식을 읽어주기 바란다. 그리고 그 피해의식은 한 개인의 특수한 성향이 아니라 다름아닌 성적인 억압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요즘은 기존의 성의 질서와 부딪히며 새로운 성의 구도를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때로는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경도되거나 자기 모순에 빠지거나 신경증적인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변화를 위한 출발이자 과정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지하철의 그녀를 사랑한다.



WELCOME



■ 작품 해설

장희선 감독 <독립영화>

·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누구나 겪어 봤을직한 사건들이 있다. 이미 안에 있는 남자의 뒷모습에 놀라 되돌아 나오는 여자, 그것에 오히려 당당해져 여유를 느끼는 남자,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거리낌 없는 행동에 오히려 숨죽여 있는 채 하는 여자, 떼거지로 몰려온 여자들에 위축되어 허겁지겁 나가는 남자, 그리고 여자들이 가득한 화장실 문을 잘못(?) 연 남자.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무엇을 느낄까를 생각해 본다.

■ 연출 의도

· 무심코 남녀 공용화장실 문을 열었다가 당황했던 경험이 있다. 그런 경험의 반복 속에 내 어느새 조심스럽고 소극적이 되어진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 '남성'에 대한 나의 공포감은 이리해 추가된다. 문밖 몇 개가 왜 사람에게 이렇게 억압감을 주는지... 참으로 이상한 구조다. '여성성'이라는 규정과 제한들도 이렇듯 사소하지만 집요하게 쌓여간다. 그러나,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다. 이러한 구조의 불합리성은 모두에게 인식되며 자신의 삶을 고민하는 친구들에 의해 나아지고 있으니까...치열한 고민 속에 만들어진 나의 세계에서 불합리성들을 두려움없이 반갑게 맞이하고 싶다.

생강(A BIT BITTER)



■작품 해설

정지우 감독 · 제 3회 서울 단편 영화제 최우수작품상, 예술공헌상, 젊은 비평가상 <독립영화>

· 생계와 가사, 육아를 모두 담당해야 하는 아내는 피로하다. 한푼이라도 더 벌고 더 절약하기 위해 악을 쓰지만 가슴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하다. 언제부턴가 남편과는 대화도 되지 않고 밤새 이어지는 남편과 동료들의 술자리는 알 수 없는 웅얼거림만이 있다.

이윽고 새벽이 오면 그들은 떠나고 '아내'는 술상을 치운다. 세상은 변했고 남편은 지쳐버렸다.

■연출 의도

· 먹고 사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특히 자기 아이들을 '민주', 혹은 '한길', '들풀'이라고 부르며 꼭박하게 90년대를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싶었다. 80년대 꼬트머리에 몸을 실은 나는 그들의 삶을 머리숙여 존경하지만 한편으로는 몹시 가슴 아프다. 이제는 더 이상 후일담을 되뇌이지 않고 새로운 출발의 용기를 키워야 할 것 같다.

이 영화를 기점으로 나는 달라지려고 한다. 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어머니와 아내, 형수들이 꾸리는 여성의 진정한 모습을 잘 모르고 있다. 나는 이 영화에서 그 여성들의 들끓는 생활을 보여주고 싶었다. 아울러 모성애에 기반한 여성의 본성적인 강인함을 담보로 끊임없이 인내와 수고를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인 성의 구도를 드러내고 싶었다.

립스틱(Lipstic)

- 1976년 미국 유니버설 작품.
- 라몬토 존슨 감독.
- 마고 헤밍웨이, 마리엘 헤밍웨이, 앤 밴크로프트 주연.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성폭력!! 그것은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통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일진데, 유독 성폭력만은 가해자의 처벌이 아닌 피해자를 다시한번 상처입히는 행위들을 지속하고 강요하고 있다. 피해자를 법정에 세우고 그들에게 다시 떠오르는기 어려운 일들은 이야기하라고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 영화는 성폭력사건을 내용으로 한다. 립스틱의 광고 모델로 알려진 주인공은 여자동생이 존경하는 음악선생의 흉모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음악 선생은 그녀의 아파트를 처음 방문하던 날 그녀를 침대에 묶고 변태적인 강간을 한다. 학교에서 돌아온 어린 동생은 이를 목격하고 충격을 받는다. 언니와 음악 선생에 대한 평소의 믿음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혼란의 순간인 것이다.

언니는 성폭행죄로 음악 선생을 고소하지만 유일한 증인인 동생이 언니가 강간 당시 얼마만큼 반항했는지를 확실하게 말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패소하게 된다. 동생은 자신이 목격한 장면에서 언니는 이미 더 이상 격렬한 항거의 몸짓을 멈춘 상태였고, 오히려 이상하게 조용했던 당시의 상황을 잘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음악 선생은 무죄로 풀려나고 주인공은 자신이 강간을 당한 것을 증명하지 못해 음악 선생을 처벌하지 못하고 자신이 화간을 뒀다는 것으로 암묵적인 결론이 지어지게 된다.

강간 사건의 후유증으로 실의에 빠진 채 한동안 삶의 안정을 차지 못했던 주인공은 마침내 재기를 결심하고 또다시 일을 한다.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자신의 여동생이 법에 의해 무죄를 판결받은 음악 선생에게 쫓겨 겁탈을 당해 버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음악 선생의 강제적인 성행위의 습관에 의해 동생까지 성폭력 피해자가 된 것을 안 순간, 주인공은 황급히 총을 찾아 그 파렴치한을 쏘아 버린다. 결국 법이 해결해 주지 못했던 일을 주인공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직감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 후 그녀가 무죄로 풀려났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영화는 끝을 맺는다. 피해자가 스스로 사건의 해결사가 되기 위해 자의적으로 범죄자가 되어야만 하고, 또 가해자 대신에 범죄자로서 제한을 받아야하는 우리의 현실이 잘 나타난 영화이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여성은 제 2의, 제 3의 피해를 당하게 된다. 법이라는 남성적인 제도는 성폭력 피해자를 볼 때 단지 피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당시 얼마만큼 저항을 했는가와 피해자가 평소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를 본다. 성폭력이라는 것이 꼭 피해자에 의해 유도되었는가를 살피는 것 같다. 결국 법도 남성이다.

화가 날 수도 있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의식이 당연히 울음전데 꼭 내가 성폭력을 당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것 같아진다. 누구에게도 이야기 못하고 결국 우리는 다른 여성들처럼 입을 다물고 말 것이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기 위해 거리를 행진할 것이다. 아무리 억울해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성폭력에 대한 것이다.

언젠가 우리가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면 한 번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 안토니아스 라인

■ 마린 고리스 감독.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여성만의 세계. <안토니아스 라인>을 보면 세상의 모든 시작이 안토니아에게서 비롯된다. 이제 대자연의 어머니인 안토니아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안토니아스 라인>의 시대적 배경은 2차대전이 끝난 직후이다. 무대는 네덜란드 시골마을로서 안토니아는 위선적인 교회와 폭력적인 가부장이 지배하는 고향마을에 돌아온다. 당시 네덜란드는 나치점령의 여파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다. 안토니아의 어머니가 죽음의 순간까지 남편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마을의 지배자는 폭력적이고 수치를 모르는 남성들이었다. 이 척박하고 피폐한 황무지에 안토니아는 독립적인 여성이 주체하는 공동체를 건설한다. 장장 4대에 걸친 장대한 역사를 서술하는 것은 안토니아의 증손녀인 사라. 사라의 어머니의 입종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온 안토니아와 딸 다니엘의 정착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처음에는 전쟁의 상처에서 헤어날 수 없는 채 쇼펜하우어의 염세철학에 빠진 '굶은 손'만이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다. 그러나 순박한 농부 바스가 안토니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약간 모자란 루니 립스가 자신을 도와준 안토니아를 따라 농장에 합류한 이래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호감을 갖게 된다.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안토니아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다. 근친상간의 제물이 된 정박아 디디, 남자에게 버림받아 떠돌던 미혼모 레타, 생명력에 대한 회절 때문에 사제복을 벗어던진 보좌 신부,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다. 안토니아의 공동체는 수많은 곡절과 시련 속에서도, 사제를 거지며 성숙하는 자연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이루어낸다.

안토니아가 창조하는 여성들의 세상은 우화적인 수법으로 표현된다. 세상의 잔인하고 서글픈 단면을 소박하고, 애교스러운 환상과 함께 표현하게 된다. <안토니아스 라인>의 등장인물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간의 특질을 저마다 대표하고 있다. 개개인으로 보면 이상한 개인에 불과하지만 한데로 뭉쳐서 보면 우리의 세상의 축소판이 된다.

안토니아의 세계는 더욱 상징적이다. 안토니아가 낳은 다니엘은 흔히 '여성적'이라고 말하는 감성에 충실한 미술가다. 그녀는 자유로운 환상과 동가하고, 광폭한 감정의 물결을 마다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녀는 여성과 가정을 이룬다. 반면 다니엘의 딸인 테레사는 '여성적'인 것이 아니라고 강요했던 수학과 철학의 천재이다. 이미 4세 때부터 '굶은 손'과 철학적인 토론을 나눌 수 있었던 테레사는 비판적인 세계관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회의한다. 이 두 여성은 지금까지 지배 이데올로기가 강요했던 여성의 전형을 전면으로 뒤엎으며, 그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다니엘과 테레사는 안토니아가 포용하는 공간에서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펼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증손녀인 사라가 글을 쓴다는 것은 그래서 의미하는 상징이다. 글은 구체적인 사실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며 하나의 개념, 영원화 이념으로 남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사라의 '안토니아의 세계'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판단하면서 '여성들의 세상'의 이상향을 제시한다. 안토니아의 죽음으로 한 시대를 마감하는 것 역시 새롭게 돌아올 봄을 기다리는 희망인 것이다.

<안토니아스 라인>은 마치 축제와 같다. 여성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다. 남성이데올로기를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고, 정면으로 공격한다. 하지만 여성들의 공동체는 남성들에게 적대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이 아니다.

이 영화를 통해 다른 어떠한 영화보다 여성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여성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 여성들간에 존재하는 인간적인 유대감을 표현한 <안토니아스 라인>은 한편의 동화처럼 우리를 기쁘게 만들 것이다.